

재난의 연쇄와 오키나와 공동체의 대응*

-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례와 함께 -

조경식**
happyset80@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오키나와 공동체 조직과 의료생활 협립 |
| 2. 소셜 속 재난의 양상과 구제론 | 4. 마치며 |

主題語: 오키나와(Okinawa), 소철지옥(Sotetsu Hell), 생활협동조합(Cooperative), 오키나와 의료생활(Okinawa Health and welfare co-ops), 평화거리라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Walking in the city named Heiwa-dori)

1. 들어가며

본고는 1920년대 일본의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전락한 오키나와의 ‘소철지옥(ソテツ地獄!)’ 시기와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의 모습을 배경으로 발표된 문학작품을 통해 재난의 연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문학 작품들 속에서 그려지는 오키나와는 모두 외부적 영향에 의해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는 인물들을 매개로 묘사되는데, 특히 ‘소철지옥’과 ‘오키나와의 본토반환’은 재난의 연쇄라는 긴 흐름 속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소철지옥’이라는 실제적 재난 상황과, 약 40년 후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통해 다른 형태로 재현되는 ‘소철지옥’의 예감 속에서 창립한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沖縄医療生活協同組合)의 사례는 이러한 재난의 연쇄를 극복하기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다.

1920년대 ‘소철지옥’ 상황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위 ‘생활개선운동’을 통한 오키나와 전통의

* 이 연구성과는 2021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1920-30년대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주요 생산물인 설탕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으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 사람들이 소철(蘇鐵) 식물로 끼니를 연명했던 시기를 소철지옥(ソテツ地獄)이라고 일컫는다.(류큐신보(琉球新報)기사참조-2003년 3월 1일)

말살을 획책하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단순한 구체책을 제시했던 일본정부의 모습은 전후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된다. 1960년대에는 미군정의 지배에서 일본으로의 반환을 둘러싸고 오키나와에서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는데, 이는 시민들에 의한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과 ‘본토복귀운동’이라는 실천적 활동으로 귀결되었다. 일찍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미군의 오키나와 군용지 접수와 기지 확장 등에서 비롯된 일방적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이 ‘섬 전체 투쟁’과 ‘본토복귀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이었다. 결국 1969년에 진행된 사토-닉슨 회담은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하지만, 핵을 비롯한 군사기지 모두를 오키나와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오키나와 시민들에게 재난적 상황을 남기게 되었다.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이것은 과거 ‘소철지옥’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과정을 상기시키는 새로운 ‘소철지옥’의 시작에 다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 속 재난의 양상과 구제론

소철지옥은 1920년대의 세계 설탕시장 가격 폭락으로 인한 오키나와지역 산업의 붕괴와 이어진 흉작으로 인한 기근으로 오키나와 시민들이 소철(蘇鐵) 식물로 끼니를 연명하던 시기를 일컫는데, 외부의 충격 이전부터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내적 요인은 다양하게 규명된 바이다. ‘류큐처분’ 이후 일본에 병합된 오키나와의 산업구조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근거한 세계 자본시장으로 급격하게 편입되어 갔고, 오키나와 기간산업으로 성립된 제당업에 대해 자유민권운동가 자하나 노보루(謝花昇)는 일찍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²⁾ 오키나와가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영토에 병합되는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유통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었는데, 일본제국의 확대는 이런 유통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즉 일본제국의 확대에 따라 대만과 동남아시아로 확산된 제당업 자본의 전개와 오키나와 농업사이의 관계는 외부적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2) 1898년 『류큐신보』에 게재한 「우리 현 설탕의 장래에 관한 의견 개요」에서 자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장래에 오키나와 현의 설탕은 점점 늘어나 65만 5000자루 안팎이라는 거대한 산출액에 달할 것이다. 이처럼 장래 산출고가 거액에 달한다 하나, 그 수요 여부를 살펴보자면 오사카 시장에서의 흑설탕 수요는 매년 40만 자루 안팎이라고 하는바, 이 사실은 앞으로 오키나와의 설탕에 일대 공황을 초래할 원인임을 피할 수 없다”(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역(2015) 『유착의 사상-「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 p.140, 글항아리)

세계시장에 유통하는 설탕으로서 상품의 생산이 확대되어간 오키나와 제당업은 1920년대에 닥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거에 붕괴한다. 1919년부터 1920년에 걸친 흑설탕 가격을 100이라고 한다면 다음 해에는 48까지 급락하고, 1935년에는 33수준까지 내려갔는데,³⁾ 이와 같은 가격폭락이 농가의 몰락을 가져오며 오키나와 경제는 과잉 잉여 노동력을 끌어안게 된다. 기간산업이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1918년에는 0.2퍼센트였던 국세 체납율이 1921년에는 47.4퍼센트로 뛰어, 금융기관은 기능 정지에 빠져 도산하고,⁴⁾ 매해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오키나와 바깥으로 흘러나갔다. 이들 대다수는 오사카 및 도쿄 등의 내지 대도시와 일본제국이 위임 통치령으로 획득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노동력으로 결합되어 갔다. 오키나와인들이 현 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소철지옥 시기인 1926년에 발표된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さまよへる琉球人)』과 1932년에 발표된 구시 후사코(久志富佐子)의 소설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滅びゆく琉球女の手記)』 등의 소설에 잘 묘사되어 있다.

두 소설은 각각 도쿄와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먼저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는 오키나와 도시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묘사하며 ‘소철지옥’ 당시의 처참한 정경을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S市では晩なぞ真暗らよ、何しろ税が高いとかで、金持ちは皆N市へ引越したがってるんだって、石垣は崩れ放題で、その困の中だって大抵畑かなんぞになってるの。あれで琉球第二の市ですからね、驚いたもんよ。おまけに、移民お断りと来た日には、目も当てられないね。出稼ぎだけで、やっとかつと繋いでるだけね!⁵⁾

[S시는 밤이 되면 아주 깜깜해. 아무튼 세금이 비싸서 부자들은 모두 N시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다고 돌담은 아무렇게나 무너져 있고, 그 울타리 안도 대개는 밭으로 변해있어. 그게 류큐에서 두 번째 도시라니 놀라울 따름이야. 게다가 이민을 거절하는 날이 오기라도 하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 되겠지. 타지에 가서 돈벌이 하는 것만으로 겨우 버티는거야]

소설 속에는 황폐화된 ‘소철지옥’ 시기 도시의 처참함과 함께,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 이주의 현황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오키나와 시민들은 피폐한 고향을 떠나 오사카, 도쿄 등의 대도시로 돈벌이에 나섰다지만, 본토 일본인들의 차별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

3)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2009) 『폭력의 예감』 그린비, pp.211-212
 4)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141
 5) 岡本恵徳・高橋敏夫・本浜秀彦 編(2015) 「滅びゆく琉球女の手記-久志富佐子」 『沖縄文学選-日本文学のエッジからの問い』 勉誠出版, p.54

하게 된다. 일찍이 류큐처분(1879) 이후 오키나와를 대상으로 한 풍속개량 요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소철지옥’ 시기 이후 오키나와 출신 노동력의 도시 유입은 내지인들로 하여금 차별 및 배척과 함께 철저한 생활개선요구를 동반하게 된 것이다.

이때 생활개선의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오키나와어, 문신, 맨발, 분묘, 센코쓰(洗骨)⁶⁾, 오키나와식 이름과 복장 및 음주, 점(占), 모아소비(毛遊)⁷⁾, 자비센(蛇皮線)⁸⁾ 반주노래, 위생, 시간 엄수 등 일생생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미치고 있다.⁹⁾ 『멸망해기는 류큐 여인의 수기』를 통해서도 당대의 생활개선요구와 차별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いれずみではどの家庭も困らされた。稼ぎ貯めた金で、息子を幾人も高等教育受けさせた処で、母は手の甲にしみついたいれずみのために、死ぬ迄故郷に置き去られねばならなかった。¹⁰⁾

[문신은 어떤 가정이라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 몇 명을 고등교육을 받게 한들, 어머니는 손등의 문신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향에 남겨져야 했다.]

僕の籍はね、x県へ移してありますから、実は、誰も此方の者だってこと知らないのです。立派なところと取引をしているし、店には大学出なんかも沢山つかっているので琉球人だなんて知られると万事、都合が悪いのです。¹¹⁾

[내 본적은 x현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이쪽 출신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훌륭한 곳과 거래를 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대학 출신도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류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만사에 좋을 것이 없어요.]

소설 속의 어머니는 오키나와 풍습인 손등 문신으로 인해 본토로 이주한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숙부는 출세를 위해 출신지인 오키나와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과거부터 상호부조와 협동의 전통이 뿌리 깊었던 오키나와는 소철지옥을 거치며 이렇게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까지 붕괴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소철지옥에 대한 대처가 유사

6) 유해를 관에 넣어 3~7년간 매장했다가 뼈를 파낸 뒤 깨끗이 씻어 다시 매장하거나 납골하는 오키나와의 전통 매장 형태
7) 마을 공터 등 정해진 장소에서 처녀총각이 일과가 끝난 뒤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교제하는 풍속
8) 16세기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뱀가죽으로 만들어진 오키나와 전통악기로 일본 본토로 유입된 후, 사미센(三味線) 개량됨
9)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 역(2002) 『전장의 기억』이산, p.45
10) 앞의 책, 岡本恵徳・高橋敏夫・本浜秀彦 編(2015), p.54
11) 앞의 책, 岡本恵徳・高橋敏夫・本浜秀彦 編(2015), p.58

식민지 정책으로 일관되었던 현실 속에서, 소설 속 주인공은 조선인과 대만인 커뮤니티가 스스로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하고 생활함을 언급하며 오키나와인 스스로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오키나와인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티의 구축 및 협동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은, 뒤에서 다루게 될 오키나와 지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성장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오키나와 구제론 논의는 『떠도는 류큐인』속에서 드러나는 소철지옥 시기의 가혹한 상황과 함께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출신 행상인 미카에루 다미요(見返民世)는 주인공 H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오키나와의 사정을 강변한다.

류큐의 중산계급은 지금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탕수수는 지어도 팔리지 않아요. 아니, 도매상이랑 내지의 자본주의가 협력하고 있어서 팔려 봤자 헐값이에요.(중략) 나하(那覇)의 세금이 도쿄보다 몇 갑절이나 비싸다고 하면 놀라시겠지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겁니다.(중략) 류슈의 탄광 생활이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류큐에 있는 것보다 극락으로 보이는 겁니다.¹²⁾

미카에루가 소설의 제목처럼 ‘떠도는 류큐인’인 된 것은 ‘소철지옥’이 초래한 지역 경제의 붕괴에 의한 것이었다. 즉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본토 제당업 자본가들 간 설탕 생산 카르텔이 형성되고, 결국 일본 내 설탕 가격이 폭락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떠도는 류큐인’을 구제하기 위한 ‘오키나와 구제론’의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소철지옥’은 탐욕적 자본과 제국주의 정책의 결합이 불러온 국가적 재난이었는데, ‘구제론’들은 오키나와를 식민지와 비슷한 위계로 한정된 지역적 문제로서 대상화하게 된다. 소설 속 배경으로 제시된 ‘소철지옥’으로 인한 문제적 상황들 역시 오키나와를 식민지와 같은 위치로 연상시키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제기된 미군기지 문제를 통해 다시금 반복 되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키나와 반환 즈음에 다시 복각된 『떠도는 류큐인』을 둘러싼 다양한 학계의 논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던 바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섬 전체 투쟁’과 ‘본토복귀운동’을 통해 오키나와 시민들은 일본으로의 복귀만이 미군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생각했지만, 결국 미군기지 유지 및 자위대 기지 신설이라는 복귀 결과물은 과거 식민지 위계의 구제론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소철지옥’에 불과했다.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오키나와가 반환될 것이라는 애초의 약속이 무산되고, 오키

12) 히로쓰 가즈오, 심정명 역(2017) 『떠도는 류큐인』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 역락, p.91

나와 시민들은 과거의 ‘소철지옥’을 떠올리며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국-식민지적 위계 관계는 『떠도는 류큐인』에서 주인공 H의 독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오키나와 출신 미카에루에게 지속적으로 기만당하면서도 내지출신인 주인공 H는 미카에루가 내몰린 소철지옥이라는 재난적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이해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도쿠가와 시대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 왔으니 다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지인에게 도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반항심이 생긴다고 해서 무리도 아니기는 하겠군.(중략) 류큐 자체에 생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류큐 바깥의 대국이 착취를 하기 때문인 것이다(중략) 만일 내가 이렇게 압박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 역시 압박자에게 신의나 도덕을 지킬 마음은 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¹³⁾

위에서 주인공 H는 소철지옥의 해결 주체로 명백히 ‘류큐 바깥의 대국’을 언급하고 있다. 즉 ‘류큐처분’을 통해 일찍이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당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에 대해 취했던 제국-식민지적 관계에 기반한 조치를 꼬집은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키나와현 농회와 오키나와 설탕동업자조합이 작성한 「흑설탕·백설탕 소비세 면세 및 오키나와 현산 분밀당 원료 생산자 보호 탄원서」(1926)에서는 “오키나와 제당업은 종래 타이완 제당업처럼 확고한 보호정책 아래서 성장해 왔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 현의 제당업은 타이완 제당업의 보호와 장려에 비해 은전(恩典)이 희박함”을 비판하고 ‘보호와 장려’를 요구하고 있었다.¹⁴⁾ 이와 같은 오키나와의 구제 요청에 대한 일본 내각 법제국 장관 호리키리 겐지로(堀切善次郎)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는 식민지를 바라보는 제국적 시각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키나와 쪽에서 타이완에 못지않은 경영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점이 충분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일본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완과 경쟁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거가 없으면(중략) 그로 인해 장래에 다시 난처한 일을 겪게 될 위험이 있지 않겠소?¹⁵⁾

앞에서도 언급한바 제당업 자본이 당시 타이완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로 확대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위에서 확인된 법제국 장관의 태도는 곧 일본정부의 입장으로서 오키나와를 식민지

13) 히로쓰 가즈오, 앞의 책, pp.99-100

14)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 역(2002) 『전장의 기억』이산, p.229

15)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p.229-230

수준의 위계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오키나와가 식민지와 국내 사이의 애매한 위치 속에서 대상화되어 갔음은 앞에서 다루었던 탄원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1935년에 작성된 「설탕 관세 및 부가세 철폐 반대 진정서」¹⁶⁾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농회장, 및 각종단체와 농민 일동의 명의로 제출된 이 진정서에서는 “정부는 다른 부현의 농촌에 대해서는 쌀값의 유지와 인상, 사업 보호와 구제 등에 거액의 국고를 쏟으며 온갖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오키나와 현민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할뿐더러...”라고 밝히며, 타 현과 오키나와현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오키나와 제당업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철지옥’ 상황 하에서 일본인으로서 본격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오키나와 노동 인구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 각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즉 앞의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 ‘류큐 바깥의 대국’, 곧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가 『떠도는 류큐인』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소철지옥 시기 일본, 오키나와 사이의 제국-식민지적 위계 관계는 전후 미군기지의 존속과 함께 진행된 오키나와 반환으로 인해 다시 재현되며, 시민들에 있어 새로운 재난 상황으로 인지되기에 충분했다. 오키나와 출신 작가 메도루마 슌(目取眞俊)의 소설 『평화거리라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平和通りと名づけられた街を歩いて)』(1986)에서 배경으로 언급되는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1975)와 ‘헌혈운동추진전국대회’(1983) 또한 본토 반환 이후 새로운 재난 속의 이벤트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오키나와 출신 작가 나카자토 유고(中里友麿)는 특히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를 ‘자본에 유리당한 체험’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¹⁷⁾ 즉, 박람회로 인해 일본 중앙의 힘 있는 부자들과 오키나와라는 변경의 힘없는 빈자들이 명확히 구별되는 공간으로 체험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박람회를 추진한 배경에는 오키나와 복귀를 포장하기 위한 이벤트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단기간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다시 이탈하며 지역 경제에 재난적인 흔적을 남긴다.

소설 『평화거리라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에서 다루고 있는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와 ‘헌혈운동추진전국대회’는 황태자 부부의 참여를 통해, 미군기지 문제라는 재난 상황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된 일본’으로 미봉하려는 과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 오키나와 시민들이 과거와 같은 식민지적 위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16)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230

17) 小島洋輔(2020) 『戦後沖縄県の文学と貧困—復帰以降を中心に』, p.6

たった1日って、あんた他人事だと思って簡単に言わないでちょうだい。捕まってきた魚腐らせ
 と言うのね、あんたは。1日でも遊んで暮らす余裕なんかないよ、私たちは(中略)なんで私たちが
 コータイシデンカのために仕事休まんといかんね、ひん?(中略)新聞には「過剰警備」に対する
 弁護士団体の抗議声明として、いくつかの警備の行き過ぎの事例が挙げられていた。¹⁸⁾

[“단 하루라니, 당신, 남 일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마. 잡아온 생선은 다 썩게 두라는 말이야?
 단 하루라도 놀면서 보낼 여유가 없단 말이야, 우리들은.”(중략) “왜 우리가 황태자 전하를 위해
 일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응?”(중략) 신문에서 ‘과잉경비’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항의 성명으
 로, 과한 경비의 몇 몇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 ‘소철지옥’을 거치며 일본정부가 취했던 식민지적 위계는 오키나와
 시민들로 하여금 보호 주체로서의 국가라는 틀을 신뢰할 수 없게 하였고, 이것은 반환과정의
 미군기지 잔류를 통해 더욱 명백히 새겨졌을 것이다.

특히, 방문 몇 개월 전부터 황태자가 통과하는 도로의 전 세대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나 근무처, 사상이나 정당 지지까지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경비를 명목
 으로 길가의 자귀나무를 잘라 버리는 과정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오키나와를 선명히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런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우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소철지옥’ 이후 새로운 재난의 상징에 균열을 가한다.

それはウタだった。くるまのドアに体当たりし、二人の前のガラスを平手で音高く叩いてい
 る、白と銀の髪を振り乱した猿のような老女はウタだった。(中略)カジュは、笑い顔を作るこ
 とも忘れて、怯えたようにウタを見ている二人の顔の前に、二つの黄褐色の手形があるのに気
 づいた。¹⁹⁾

그것은 우타였다. 차 문에 몸을 부딪쳐 두 사람(황태자부부) 앞의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큰 소리
 로 두드리고, 백발과 은발을 마구 헝클인 원숭이 같은 나이든 여자는 우타였다.(중략) 가주는
 웃는 표정을 짓는 것도 잊고, 겁먹은 듯이 우타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두 개의 황갈색
 손모양이 있는 것을 눈치챘다.

황태자 부부의 얼굴이 비치는 차 유리에 대변을 문지른 우타를 보며 주위의 오키나와 시민
 들이 함께 실소를 하는 이 부분은 상징 권력 이데올로기 대한 냉소와 함께 비로소 재난 앞에

18) 目取眞俊(1986) 「平和通りと名つけられた街を歩いて」『オキナワの終わらぬ戦争』集英社, p.414, p.440

19) 앞의 책(1986), pp.463-464

마주서는 오키나와 공동체를 실감하게 한다. 이와 함께 “전쟁에서 그만큼 피를 흘렸는데 무슨 헌혈대회를 한단 말이야”라는 소설 속 인물의 일갈은 또한 재난에 의한 지난 희생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오키나와를 구성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소철지옥’을 거치며, 일본이라는 울타리의 한계를 일찍이 경험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던 일본으로의 반환 과정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철지옥’을 예감하며, 오키나와 시민들은 ‘반(班)조직’을 통해 생존을 위한 지역 운동을 전개해갔다. 오키나와 시민들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전개한 상호 협동과 조직, 지역운동의 양상은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沖縄医療生活協同組合)의 창립으로 대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어 볼 것이다.

3. 오키나와 공동체 조직과 의료생활협 창립

오키나와 시민들의 염원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오키나와 반환 과정은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의 추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오키나와의 오랜 상호부조 및 공동체 전통과의 결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조(組) 모임은 지역적인 연결의 기본이었는데, 주로 사타야(サーターヤー, 설탕제조장)를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는 단위였고, 동시에 그 밖의 행사나 장례식을 돕는 단위로 혈연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체를 바탕으로 ‘소철지옥’이라는 경제적 붕괴 과정을 경험하고, 본토 복귀과정의 ‘섬 전체 투쟁’에서 끈끈한 조직적 결합을 획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형성해 갔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72년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오키나와 의료생활’)의 창립에 핵심이 된 시민들의 ‘반(班)’이라는 조직활동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의 ‘반’ 조직은 생활기반의 거주지 인근 조합원들이 10명 내외의 작은 그룹으로 친목을 다졌던 활동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점차 조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어갔다. 협동조합의 역사를 깊은 서유럽에서도 일본의 ‘반’ 활동에 주목하여 ‘班(HAN)’은 이제 국제어로 지정 될 정도로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²⁰⁾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장으로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단위별 조합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소통을 가장 민주적·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의 기반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0) 정진성(2001)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한울, p.270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조’ 모임이 생협의 ‘반’ 조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1950-60년대 ‘섬 전체 투쟁’을 비롯한 미군정 상대의 다양한 쟁의과정의 조직화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69년 사토니슨 회담 이후, 오키나와 반환과 병행되는 미군기지 잔존이라는 새로운 재난의 예감은, ‘반’으로 조직된 풀뿌리 조직들에 의한 1972년 ‘오키나와 의료생협’ 출범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조합의 주체가 조합원을 넘어서는 ‘생활자²¹⁾’로 규정되는 생협조직은 ‘반’을 통해 오키나와의 생활 전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거시적 사안에 관한 토론과 조직, 참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낸다. 덧붙여 1960년대 오키나와의 병원 및 진료소는 전국 평균에 비해 절반 이하였고, 의사 및 간호사의 숫자는 1/3 이하였다는 배경은 ‘반’조직의 움직임에 큰 계기가 되었다.

‘오키나와 의료생협’ 출범을 위해 시민들의 ‘반’조직과 함께 ‘민주진료소(民主診療所)’의 역할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70년 오키나와 나하시(那覇市)에 ‘민주진료소’가 설립 될 때 까지, [사진1]의 신문 기사처럼 오키나와 시민들은 의료 문제의 열악한 상황에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손으로 의료기관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라는 슬로건²²⁾으로 향후 ‘오키나와 의료생협’ 출범으로 발전해간 것이다.



21) 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는 『대안적 시민사회 선언』에서 협동조합의 ‘생활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활자는 문제해결의 장을 자신의 생활과 분리된 외부의 장(정치나 행정과정)에서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함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는 의지가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생활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에 따른 ‘책임’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주체성을 가진다.”(요코다 카쓰미, 나일경 역(2004)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논형, p.104)

22) 沖縄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那覇民主診療所10周年記念集』, p.3

<사진1> 민주진료소 설립 당시 의료복지의 빈곤을 호소하는 신문기사²³⁾

1960(쇼와35)년 당시 오키나와의 15년간 미군정하에서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제적 빈곤층 인구는 15.9%에 달하고 있었는데, 팽창으로 인한 일주일간의 의료비가 당시 120달러, 치질의 경우 8일간 200달러에 이르는 의료비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²⁴⁾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집과 밭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 갈 수 없는 현황의 타계를 위해 1970(쇼와45)년 ‘민주진료소’ 설립준비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설립준비회를 통해 약 150회/2,000여명의 사람들에게 의료의 현황과 병원건설의 협력을 호소하며, 나하시에 설립된 ‘민주진료소’는 목조 2층으로 의사(2), 간호사(3), 검사기사(1), 약제사(1), 사무장(1), 의료사무원(1)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진2> 민주진료소 설립 당시 9명의 의료직원²⁵⁾

환자와 지역의 사람들이 출자하여 지탱하는 의료기관은 그때까지 체험한 적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당시에는 좀처럼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랜기간 동안 빈곤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은 왕진과 무료 노인건강진료 등에 크게 호응했

23) 앞의 책, 沖繩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p.5
24) 앞의 책, 沖繩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p.4
25) 앞의 책, 沖繩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p.8

다. 기존 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제한적인 왕진으로 인한 의료 사각에 위치했던 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다. 특히 거주지를 벗어나 이동하기 힘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큰 호응을 얻어, 1972년에 이르면 나하시 노인건강검진 진료자수는 전체의 약 절반에 가까운 500명에 이를 정도로 노인건강의 상태 파악이 명확해졌다.

‘민주진료소’가 설립되고 약 2년간의 시민중심 의료활동이 높은 평가를 얻으며, ‘반’을 중심으로 결합된 오키나와 지역 모임들(토모노카이(友の会))은 보다 힘있는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게 된다. 곧이어 ‘의료생활협동조합발기인회’가 결성되고, 2개월 간 생협설립 찬성자 서명을 3천명에게 받으며 마침내 1972년 10월 1일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창립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오키나와 의료생협’ 창립 이후 ‘민주진료소’의 외래환자숫자도 1일 평균 100~130명, 최대 150명까지 늘어나며,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병원 대기실은 시민들에게 사교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점차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소모임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진3]처럼 환자의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질병의 학습을 진행하는 환자모임의 형태로 시작된 소모임은 점차 시민들 간 조직 활동의 내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오키나와 의료생협’은 기존 오키나와 노인건강검진제도의 복잡한 신청절차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노인건강검진 무료화를 주장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오키나와의 노인건강검진 예산 확대를 이루는 성과를 만들어낸다.



<사진3> 학습, 교류의 장으로 발전한 환자모임 및 소모임 활동모습²⁶⁾

‘오키나와 의료생협’은 창립 1주년 만에 조합원 2,027명, 출자금 804만엔을 달성했고, 1976(쇼와51)년에 마침내 종합병원 규모의 ‘오키나와 협동병원(沖縄協同病院)’을 개원한다. 1970

26) 앞의 책, 沖縄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pp.14-15

년 민주진료소 개원 당시 9명의 직원에 불과했던 규모는 1976년 1병원과 1진료소를 합쳐 123명에 이르게 되는데, ‘협동병원’의 개원은 ‘반’조직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반’조직의 힘이 다소 약화되고 운영 숫자도 2개까지 줄어드는 등 정체 상태에 빠졌지만, ‘협동병원’ 개원 후 22개의 반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활발한 ‘반장 회의와 의료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활동이 오키나와 지역의 큰 행사로 정착된 예로 [사진4]의 봉오도리(盆踊り) 대회를 들 수 있다. 1978년 조합원과 병원 및 진료소의 직원이 협동하며 개최한 제1회 봉오도리 대회는 지역민을 포함해 1,000여명이 참가하여 지역의 교류와 단결의 장을 만들어냈다. 준비과정에서 지역 각 ‘반’의 반장을 중심으로 자주성을 발휘한 이 행사는 조합원, 환자, 직원의 협동으로 성대히 진행되었고, 제2회 행사는 1500명, 제3회 행사는 2000명이 참가하는 등 성대히 진행되며 지역의 명물연중 행사로 정착하였다.



<사진4> 오키나와 명물행사로 발전한 ‘의료생협 봉오도리’ 및 ‘반’활동모습²⁷⁾

오키나와에 ‘민주진료소’가 설립 된 이후, ‘반’조직 활동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의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곧 ‘오키나와 의료생협’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키나와 ‘반’조직은 소모임 학습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고, 봉오도리 등의 공동체 활동 및 건강보험법 개악 반대 등의 사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료와 생활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생협조직의 활성화는 결국 본토 반환 이후에도 일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고립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환 이후에도 미군정 시기와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다양한 문제들-미군 포격 훈련 사상사건, 민간인 저격 및 성범죄 사건

27) 앞의 책, 沖繩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pp.25-26

등-을 접하고 시민들은 자발적인 생협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이라는 울타리 밖에서의 삶을 모색해 간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오키나와 ‘소철지옥’ 시기의 재난 양상과 본토 복귀 후 새로운 재난에 대응해 간 오키나와 공동체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룬 세 작품, 『떠도는 류큐인』과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 그리고 『평화거리라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는 ‘소철지옥’과 본토복귀 이후라는 다른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를 관통하며 재난에 직면한 오키나와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소철지옥’ 시기 오키나와 시민들에게 강요된 생활개선운동이 결국 정체성의 개량 및 삭제를 요구했던 부분과, 오키나와 반환이후 일본으로의 동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모두 중주국-식민지의 내재적 관계를 꼬집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류큐처분’ 이후 ‘소철지옥’ 시기를 거치며 겪었던 재난은 오키나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은 본토 반환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거진 재난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 오키나와 시민들은 전통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의 공동체를 계승해갔다. 전통적인 조직 단위로서 ‘조’는 생활협동조합의 ‘반’조직으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공동 출자 병원인 ‘민주진료소’의 설립으로 낙후된 오키나와의 의료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자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공동체 ‘반’활동의 자신감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오키나와 의료생협’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키나와 의료생협’의 창립은 협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증명함으로써, ‘반’조직 주도하에 명물 지역행사 ‘오키나와 봉오도리’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기점으로 기능하며 시당국의 노인건강검진 예산 확대 등을 관철시키게 된다. 이렇게 연쇄되는 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오키나와 공동체는 ‘오키나와 의료생협’ 창립을 통해 개개인 간의 협동과 연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오키나와 지역운동의 초석이 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용·손지연(2017)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역락
 김재용(2018) 『현대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역락

곽형덕(2020) 『오키나와 문학 선집』소명출판
 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역(2015) 『유착의 사상-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글항아리
 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역(2020) 『시작의 앞-프란츠 파농의 입장』문학과지성사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2009) 『폭력의 예감』그린비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 역(2002) 『전장의 기억』이산
 사이토 요시아키, 다나카 히로시 역(2020)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그물코
 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 역(2008) 『오키나와 현대사』논형
 오사와 마리, 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구소 역(2012) 『생활 속의 협동』푸른나무
 오세중, 손지연 역(2019)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소명출판
 오에 겐자부로, 이애숙 역(2012) 『오키나와 노트』삼천리
 와카츠키 타케유키, 이은선 역(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그물코
 요코다 카쓰미, 나일경 역(2004)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논형
 진필수(2011) 『오키나와 문화론: 미군기지와 촌락공동체』민속원
 조정민(2017) 『오키나와를 읽다-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소명출판
 존스턴 버첼, 장종익(2003)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들녘
 정근식·주은우·김백영(2008)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논형
 정근식·전경수·이지원(2008) 『경계의 섬, 오키나와: 현실과 운동』논형
 정진성(2001)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한울
 한영혜(2004)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남출판
 히로쓰 가즈오, 심정명 역(2017) 『떠도는 류큐인』,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역락
 相馬健次(2002) 『戦後日本生活協同組合論史』日本經濟評論社
 沖繩医療生活協同組合 編(1970) 『那覇民主診療所10周年記念集』沖繩医療生活協同組合
 岡本恵徳(2000) 『沖繩文學の情景』ニライ社
 岡本恵徳·高橋敏夫·本浜秀彦 編(2015) 『滅びゆく琉球女の手記-久志富佐子(1932)』『沖繩文学選-日本文学
 のエッジからの問い』勉誠出版
 山之口獺(外)編(2012) 『平和通りと名つけられた街を歩いて-目取眞俊(1986)』『オキナワの終わらぬ戦争』集
 英社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7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재난의 연쇄와 오키나와 공동체의 대응

조경식

세 작품, 『떠도는 류큐인』과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 그리고 『평화거리라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는 ‘소철지옥’과 본토복귀 이후라는 다른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를 관통하며 재난에 직면한 오키나와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소철지옥’ 시기 오키나와 시민들에게 강요된 생활개선운동이 결국 정체성의 개량 및 삭제를 요구했던 부분과, 오키나와 반환이후 일본으로의 동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모두 종주국-식민지의 내재적 관계를 꼬집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류큐처분’ 이후 ‘소철지옥’ 시기를 거치며 겪었던 재난은 오키나와 시민들의 염원을 깃뚫은 본토 반환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거진 재난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 오키나와 시민들은 전통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의 공동체를 계승해갔다. 전통적인 조직 단위로서 ‘조’는 생활협동조합의 ‘반’ 조직으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공동 출자 병원인 ‘민주진료소’의 설립으로 낙후된 오키나와의 의료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자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공동체 ‘반’ 활동의 자신감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오키나와 의료생활’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키나와 의료생활’의 창립은 협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증명함으로써, ‘반’ 조직 주도하에 명물 지역행사 ‘오키나와 봉오도리’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기점으로 기능하며 시당국의 노인건강검진 예산 확대 등을 관철시키게 된다. 이렇게 연쇄되는 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오키나와 공동체는 ‘오키나와 의료생활’ 창립을 통해 개개인 간의 협동과 연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오키나와 지역운동의 초석이 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 chain of disasters and the response of the Okinawan community

Cho, Kyung-Sik

Three works, 『Samayoeru ryuukyujin』, 『Memoirs of a Perishing Ryukyu Woman』, and 『Walking in the city named Heiwa-dori』 are set in different time zones such as “Sotetsu Hell” and after returning to the mainland, but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deals with Okinawa facing disasters throughout the times. In addition, both the part in the work that the life improvement movement forced by Okinawa citizens during the “Sotetsu Hell” demanded the improvement and deletion of identity and the part that demanded assimilation to Japan after the return to Okinawa can be seen as pointing out the inhe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colony. It can be seen that the disasters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 of “Sotetsu Hell” after the “annexation of ryukyu” were reproduced in a new form through the process of returning to the mainland that trampled on the wishes of Okinawa citizens. In order to break the chain of disasters that erupted, Okinawa citizens inherited a traditional community of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s a traditional organizational unit, “Gumi” led to a “HAN-organization” of the living cooperative, actively engaged in low-interest activities to protect their right to live, and sought to improve Okinawa’s medical environment, which was underdeveloped by the establishment of a joint-invested hospital, “Minju Clinic”. This confirmed confidence in community “HAN-activitie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kinawa Medical Cooperative,” which can exert greater power. The Okinawa community, which tried to save itself in such a series of disasters, proposed a new alternative to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individual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Okinawa Medical Cooperative.